

BTS·오징어게임, 美 한류 골든시즌 접수한다

BTS, 이달 27·28일 LA 콘서트 시작
12월엔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도
오징어게임, 몰아보기 프로 후보에
이정재는 새시리즈 연기상 가능성
하와이 영화제도 한국영화 선보여



이달 27·28일과 12월1·2일 미국 LA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펼치는 그룹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도 비슷한 시기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무대에 오르고, 20여편 한국영화도 하와이국제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난다. '케이(K) 콘텐츠'의 동시다발적 미국시장 공략이다. 사진출처 | 방탄소년단 SNS

"BTS가 끌고, '오징어게임'과 이정재가 밀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미국에서 한류의 '골든 시즌'이 펼쳐진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케이(K) 콘텐츠'가 현지의 다양한 무대에 오른다. 케이팝의 글로벌 팬덤을 이끌어온 그룹 방탄소년단과 최근 세계적 신드롬을 몰고 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그리고 '기생충'의 성과를 이어나는 영화를 말라한다.

포문은 방탄소년단이 연다. 이달 27·28일(이하 한국시간), 12월1·2일 로스앤젤레스(LA) 소피아 스타디움에서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LA(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를 펼친다.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LA 램스와차저스의 홈구장이기도 한 이곳에서 20만 팬과 대면 소통한다. 티켓이 지난달 매진됐고, 압

표까지 가격이 치솟을 만큼 공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12월7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열리는 '2021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무대에도 오른다. 이번에는 '오징어게임'과 함께 나선다.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 방송사 CBS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대중문화 시상식이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그룹·노래(버터)·뮤직비디오(마이 유니버스)' 등 세 부문 후보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올해의 앨범'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이들과

빅히트 뮤직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신인 아티스트' 후보가 됐다.

세계적 신드롬을 몰고 온 '오징어게임'도 '올해의 몰아보기 프로그램' 부문에 후보로 선정됐다. '로키', '섹스/라이프' 등 7편과 결합한다.

'오징어게임'은 주연 이정재를 29일 뉴욕에서 열리는 독립영화 시상식 고섬 어워즈의 수상 후보로 올려놓았다. 이정재는 '새 시리즈 연기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더 러트 로드 버드'의 에단 호크, '퀸스 캄빗'의 안야 테일러 조이 등과 경쟁한다. '오징어게임' 속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동영상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등 여전히 화제를 모으고 있어 수상 가능성이 높고 있다.

북미지역의 대표적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하와이국제영화제도 한국영화를 대거 선보인다. 28일 폐막하는 영화제는 일본·홍콩 등 주요 아시아영화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 '십개월의 미래' '대외비: 권력의 탄생' 등 한국 장단편영화 20여편을 상영한다. 케이팝,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전 세계의 집중적인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영화제에도 관심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기 기자 tadada@donga.com

태국 출신 리사 '금의환향'

첫 솔로곡 '라리사' 뮤비 3억 2000만뷰
태국 의상·유적지 소개 태국총리도 칭찬
태국을 대표하는 소프트파워 주역 부상



리사

'금의환향'

최근 케이(K)팝 여성 솔로가수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자신의 고향인 태국에서 '소프트 파워'의 주역으로 떠올라 눈길을 끈다. '소프트 파워'는 한 국가의 문화와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일컫는다.

리사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9월 발표한 솔로곡 '라리사'(LALISA) 뮤직비디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이 시발점이 됐다. 그는 뮤직비디오에서 태국 복동부 부리 랍주의 파놈 룡 역사공원의 석성과 태국 전통 세공품을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뮤직비디오는 8일 현재까지 유튜브 조회수 3억 2000만 건을 넘어섰다. 3억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지닌 케이팝 여성 솔로가수는 같은 그룹의 멤버 제니와 리사, 두 명뿐이다. 특히 리사는 최단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 '라리사'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84위 등 케이팝 여자 솔로가수의 여러 기록을 갈아 치우며 식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태국 뿌라웃 짬오차 총리도 칭찬하는 등 현지에서도 크게 열풍을 일으켰다. 최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리사가 태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를 국제적으로 전파했다"는 뿌라웃 짬오차 총리의 말을 전했다. 뿌라웃 짬오차 총리는 "리사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태국의 전통의상, 대표 관광 명소와 유적지 등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전파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이 아닌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1박2일' 제작진, 김선호 하차 공식 발표



김선호

전 여자친구와 관련한 사생활 논란으로 KBS 2TV '1박2일'에서 하차한 배우 김선호와 관련해 제작진이 8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 이후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오른 김선호 하차 반대 목소리에 대한 답변 형식이다. KBS 이황선 예능센터 예능1CP(책임프로듀서)는 "10월20일 김선호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전 서로 간에 사전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동고동락하며 좋은 호흡을 보여준 6인 멤버의 조화를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게 되어 제작진도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선호가 프로그램에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4인조 티아라, 새앨범 내고 4년만에 컴백

그룹 티아라가 4년 만에 돌아온다. 큐리·지연·효민·은정으로 구성된 4인조 그룹 티아라가 15일 새 앨범을 내놓는다. 2017년 미니앨범 '왓츠 마이 네임?'(What's my name?) 이후 4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모바일 미디어 채널 딥고는 8일 오전 딥고 뮤직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티아라의 새 앨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카우보이 의상을 입은 티아라 멤버들의 뒷모습이 담긴 이미지이다. 이번 앨범에는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조영수·안영민 작곡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더한다.

FT아일랜드 출신 최중훈 형기마치고 8일 출소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던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중훈이 8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최중훈은 2016년 1월과 3월 가수 정준영, 클럽 버닝전직원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5월 구속됐다.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SNS 메시지 대화방인 이른바 '정준영 단독방'을 통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중훈은 이후 상고심까지 거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최중훈과 같은 혐의를 받은 정준영은 징역 5년형에 처해져 현재 복역 중이다.

연예계는 지금 '핑크빛 무드'

이정재와 연인 임세령 부회장
美 아트·필름 갈라 동행 화제
이하늬, 일반인 남성과 교제중
이시연, 서지승과 12월 결혼

8일 연예계에 핑크빛 물결이 넘실댔다. 톱스타급 연예인들이 제각각 사랑의 결실을 맺거나 짧지 않은 시간 이어온 애정을 과시하며 세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배우 이정재(48)가 7일(이하 한국시간) 대상그룹 임세령(44) 부회장과 미국 LA 카운티뮤지엄(LACMA)에서 열린 '2021 LA CMA 아트+필름 갈라'에 임 부회장과 함께 참석했다. 두 사람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했다. 행사는 미술과 영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아티스트를 선정, 시상하는 무대로 올해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상을 받았다.

이날 이정재는 임 부회장, 에바 차우 LA CMA 이사, 마르코 비자리 구췌 CEO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임 부회장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다정한 포즈를 취했다.

두 사람은 2015년 1월 교제 중임을 밝혀

7년 가까이 애정을 쌓아가고 있다.

6일 막을 내린 드라마 SBS '원더우먼'의 주인공 이하늬도 8일 사랑에 빠졌음을 털어놓았다. 이날 소속사 측은 "이하늬가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비연예인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38살인 이하늬가 "진지한 만남"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그 결실에 대한 기대감도 키운다.

배우 이시연(39)은 이날 모델 출신 배우 서지승(33)과 12월25일 결혼한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2018년 2월 연인 사이임을 공개했다. 이후 4년여 만에 결혼하게 됐다.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로 조용히 예식을 치를 계획이다. 이시연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로 스타덤에 올랐고,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시청자 사랑을 받았다. 서지승은 2006년 '반올림'으로 데뷔해 드라마 '7급 공무원' 등에 출연했다.

올해 6월 혼인신고로 통해 부부가 된 가수 겸 배우 이지훈과 14세 연하 일본인 여성 미우라 아이네씨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당초 9월 예식을 올리려 했지만 신



이정재

임세령



이시연

서지승

이정재·이하늬 등 스타들이 잇따라 자신의 사랑을 공개하고 그 결실을 맺는 등 8일 연예계에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스포츠동아DB·뉴스1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들은 SBS 예능



이하늬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 중이다. 윤여기 기자 tadada@donga.com

김영철·심은경, 해외서 영역 확장

김영철, 美 코미디쇼 '서울헌터스' 출연
심은경, NHK 드라마 '군청영역' 주연

최근 '케이(K)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마동석, 이정재 등이 해외에서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새 무대 삼은 또 다른 스타들이 눈길을 모은다. 개그맨 김영철과 배우 심은경이다.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주연작을 내놓으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영철은 미국 코미디쇼 '서울 헌터스'(Seoul Hunters)에 나선다. 6월 현지 촬영에 최근 파일럿 제작을 확정했다. 초자

연적인 유령 캐릭터로 출연자를 놀라게 하는 '깜짝 카메라'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김영철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 캐시 심이 출연하고, 그의 남편이자 영화 '박물관이 나왔다'의 각본가 로버트 벤 가랜트가 연출한다. 워너미디어그룹 계열의 트루티비가 방영한다.

데드라인 등 현지 매체는 최근 관련 소식과 함께 김영철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를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트로트 가수"라고 소개했다. 김영철은 미국 진출을 꿈꾸며 10여년간 공부한 영어 실력을 과시하며 촬영을 마쳤다. 앞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다"고 강조해온 그는



김영철

심은경

2016년 호주 멜버른 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 무대에도 올랐다.

심은경은 현재 일본 NHK가 방영 중인 드라마 '군청영역'의 주연이다. 극중 인기 밴드의 멤버로, 연인인 보컬리스트에게 배

신당한 뒤 한적한 바닷가에 숨어 지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앞서 '7인의 비서' '아노니머스~경시청 손가락 살인 대책실' 등 현지 드라마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원톱 주연은 처음이다.

모든 장면을 일본어로 소화하며 주연으로서 이후 재팬 등 각종 매체와 인터뷰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이후 재팬 인터뷰를 통해 "주연으로 출연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책임감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년 주연영화 '신분기차'로 이듬해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입지를 굳힌 그는 2017년부터 일본 소속사 유마니테와 손잡고 현지 활동을 벌여왔다.